



인천정유주식회사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맞이했던 새천년의 첫해를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 태 인

〈인천정유 대표이사〉

지난 한해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한 해는 인천정유로 거듭난 이후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회사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력했던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50%를 밀들던 공장 가동을 정상화 시키며 흑자경영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은 국내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인천정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안이 환율을 급등시키고, 국내 자금시장을 급속도로 경색시켜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예상치 못한 폭등과 환율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석유류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며,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등장한 수입업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한해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학자지나 전문가들은 올해도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전망이 밝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간 호황을 누려온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도 경기침체에 따른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시 감원바람이 부는 등 기업들의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 시작되었고, 국내의 대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 모두

는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의 경영 목표인 '흑자경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신사년 새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과 제품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위기관리 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유업의 특성상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의해 경영성고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외부환경의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비용절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회사 내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찾아내 없애야 할 것입니다. 모든 투자계획은 재검토를 통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공장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안전관리는 회사와 임직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1인 2자격 갖기 운동"도 공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어학, 컴퓨터 등 가능한 분야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기계발 여부를 개인의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정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신사년 새해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